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 상호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Resource Transfers between Middle-Aged Parents and Their Married Children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사 김 영 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고 선 강***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Ph. D. Kim, Young-Soon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Koh, Sun-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s on resource transfers between middle-aged parents and their married children. This study used 2009 data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garding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kfr-2009-c00010). A sample of 1208 households of middle-aged parents with married children was used. The study found that parents provid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o their married childre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re parents receiv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where the household income of parents was high, where the children were younger, and where the children were male. Parents provided instrumental resource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김영순(angela1203@hanmail.net)

***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transfers to their married childre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re parents receiv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where the gender of children was female, where the children were employed, where married children had their own children who were either younger than a preschooler, and where household incomes of married children were high. Parents receiv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in these circumstances: where their emotional ties with their children was high, where the household income of the parents was low, where the household income of the married children was high, and where married children had preschooler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arents receiv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were where parents provid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and the household incomes of married children were high.

Key Words :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돌봄(caring), 경제적 자원이전(financial resource transfers), 도구적 자원이전(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부모자녀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 서론

우리나라의 중년기 세대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에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산을 주도해 왔고, 동시에 강력한 소비 세력으로서 민간 소비를 주도해 왔다.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사회적 부양비용 절감에 기여를 하고 있는 세대이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지금의 중년기 세대는 자신의 부모는 부양하지만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2년 70.7%에서 2012년 33.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우리사회의 노부모 부양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중년기 세대는 노후에 자녀로부

터 부양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자녀세대를 위한 경제적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손용진, 2008).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 한 명의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억9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김승권 외, 2012)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이 약7천5백만 원, 여성은 약5천2백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결혼 당사자가 온전히 부담한 부분은 남성의 경우 38.6%, 여성은 41.5%로 나타나 부모가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1) 결과에 따르면 결

혼비용으로 남녀가 합하여 평균 1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비용 중 신혼집 마련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현실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목돈이 들어가는 신혼집 마련을 자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현재 중년기 세대의 자녀들의 독립은 중년기 세대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던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 중년기 세대의 자녀들은 학력이 높고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과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고학력에 걸맞은 적절한 취업자리는 과거에 비해 보다 경쟁적으로 바뀌고 있어,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중년기의 부모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들이 어렵게 취업을 하고 부모로부터 생활을 독립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과 불충분한 소득으로 부모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결혼 후 5년 이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의 결혼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선강, 2012).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 부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2012년 한 생명보험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600명 중 약 2/3가 자신의 은퇴생활 설계에 자녀를 위한 결혼비용 준비가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고 답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12.6.26). 중년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자신의 노후준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중년기 세대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범위가 경제적인 면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년기 부모는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 돌봄을 지원하고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가정생활 측면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

다(고선강, 2012).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현재 중년기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부모와 자녀에 대해 더 큰 부양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고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중년기 세대가 그들의 성인 자녀를 부양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을 중년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자원이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십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세대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동안의 연구경향을 정리해 보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배희선, 1998; 서소영·김명자, 1998; 김지경·송은경, 2004; 김지연, 2005; 박미려, 2007; 김지경·송현주, 2008; 손용진, 2008; 황남희·정주연, 2009; 하석철, 2010)이 주류를 이룬다.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측면과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의 양방향성을 모두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도구적 자원이전은 대부분 자녀의 노부모 돌봄과 부양에 관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는데, 경제적인 자원과 도구적인 자원을 함께 분석한 연구들(강유진·한경혜, 1997; 고선강, 2008; 김진, 2008; 이윤정, 2010)도 자녀의 일방적인 부모 부양에 초점을 두었다.

중년기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갖는다(Grundy & Henretta, 2006). 우리나라 중년기 세대에게 자녀 부양 부담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세대간 자원이전 연구들이 노부모 세대와 중년기 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연구했다면, 중년기 세대와 그들의 성인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세대간 자원이전 연구에서 자원이전 주체들의 특성에 따라 자원이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선강, 2012). 즉 중년기 세대가 이들의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는가,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자

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노부모 부양의 관점에서 중년기 세대와 그들의 부모세대와의 자원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중년기 세대와 그들의 성인 자녀 세대와의 자원이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세대간 자원이전에서 특정 자원을 주고받는 행동이 다른 자원을 주고받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행연구들(강유진·한경혜, 1997; 고선강, 2008; 김진, 2008; 이운정, 2010)처럼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을 함께 연구하는 것에 더하여 부모-자녀 간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 주목하여 경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김은경, 2002; 이형실, 2003; 안경숙, 2005; 임효연, 2009)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또한 노인을 중심으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각 자원들 간의 상호 영향력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세대의 가족 내 자원 이전을 중년기 세대와 그들의 성인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자원,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중년기 세대가 각각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 자녀로부터 각각의 자원을 수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자원이전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자녀 간 정서적 지지가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 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년기의 부모와 그들의 따로 사는 기혼자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 세대와 그들의 자녀세대를 위한 가족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부모와 자녀 간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이타주의 이론과 교환이론이 있다. 이는 자원이전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타주의는 타인의 복지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한다. 이타주의 이론은 가족을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로 보고 가족구성원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와 다른 가족구성원의 효용함수로 구성되는 것이다(박미려, 2007). Becker(1992)는 가장의 안녕감이 가족원의 안녕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이타적 부모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통해서 그 자녀의 소비를 촉진시켜주면, 그 자녀의 안녕감이 증진되고 따라서 부모의 안녕감도 증진된다는 것이다(고선강, 2005). 이타주의적 부모는 자녀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이전하는 반면 그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원이전을 줄이게 된다(김지경·송은경, 2004). 뿐만 아니라 이타주의에 입각한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재능과 같은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녀에게 더 많은 비인적자본의 투자를 유도한다. 그 이유는 이타적 부모의 효용은 자신의 소비뿐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모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희생함으로써 경제적 복지 수준이 낮다고 예상되는 자녀들의 수준을 보상해 주어 자녀 간 경제적 지위의 균등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배희선, 1998). 이타심은 특히 부모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타주의 이론을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한정하지 않고, 반대로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으로 확장시켜 생각할 수도 있

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성인 자녀의 효용함수에 노부모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만 자녀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이전을 통해서 부모의 복지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감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다(고선강, 2008). 소득과 자산이 낮은 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면 이는 이타주의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oh & MacDonald, 2006). 자녀와 부모와의 시간 자원이전을 이타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자녀를 돕는 시간을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를 높이고 그 결과 부모의 복지도 높아지게 된다.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복지를 위하여 보살핌 시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부모의 복지가 높아지면 자녀의 복지도 높아진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은 이타주의 측면에서 효용을 높이는 특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간이 배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지수 · 홍공숙, 2007).

교환이론에 따르면 자원 이전은 자원의 제공자가 자원이전을 이용해서 자원의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것으로 예측되는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교환이론에서 호혜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고선강, 2008).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미래에 자녀로부터 돌아오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행동일 수 있다(고선강, 2011). 이러한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경제적 자원이전뿐만 아니라 동거,

보살핌,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노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행위 뿐만 아니라 노부모가 소유하는 자원은 자녀들의 부양을 유인하여 자녀들의 부양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교환이론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진, 2008). 부모들은 자신에게 더 잘하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을 하려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다 많이 상속받기 위하여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제공하거나 자주 찾아뵙는다는 것이다. 즉, 자산이 많은 부모를 둔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고(Koh & MacDonald, 2006), 상속 가능한 자산이 적고 병중인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덜 받는 반면, 상속이 가능한 자산이 많으면서 병중인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Bernheim, B. D. et al., 1985). 한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은 그것이 주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되며, 제공자는 수혜자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원이전을 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 형평성은 서로 다른 범주의 자원 교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김현주, 2005). 따라서 부모로부터 수혜와 보상을 많이 받는 자녀에게서 부모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이상림 · 김두섭, 2002).

2. 선행 연구 고찰

1) 자원이전 및 정서적 지지와 자원이전의 관계

과거에 자원을 제공(수혜)받은 경험과 현재의 자원 수혜(제공) 경험의 관계는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요한 관심 주제이다. 이윤정(2010)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

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
는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성은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 높았다. Henretta 외
(1997)는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부
모 아래 자녀들 중 누가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
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에 부모로부
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자녀가 현재 부모에
게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WLS(Wisconsin Longitudinal Study)자료를 이용
한 Koh와 MacDonald(2006)의 연구는 과거에 부
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자녀가 현재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결과를 보였다. 고선강(2008)의 차매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결과에
서도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
공하거나 가사 및 육아도움을 제공한 경우, 자녀
의 차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고선강(2012)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분석하여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과 경제 자원이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
을 지원한 경우 자녀가 결혼 후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정서적 지지와 자원이전의 관계를 연구한 선
행연구는 많지 않다. 김명자·손서희(2005)는 기
혼자녀와 부모 간의 정서적 결속도와 부양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기혼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양행동 수
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양행동을 정
서적 부양행동, 서비스적 부양행동, 경제적 부양
행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서비스적 부양행
동을 도구적 자원이전으로 경제적 부양행동을 경
제적 자원이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연구는
자원을 이전했는가를 측정하지 않았기 아니라 전반적

인 경향성을 총 21문항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이들 연구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의 총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정서적 지지와 서비스적 부양행동,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부양행동 각각의 관계는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2) 부모관련 변수

부모의 연령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을 분
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자녀
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경향이 높게 나
타난 반면, 김진(2008)은 노부모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노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지원 행위가 감
소한다고 하였다. 김명자·손서희(2005)의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여러 연구에서 다른 결과
를 보였는데, 이윤정·고선강(2011)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보다
중졸이나 고졸의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김순미·박미려
(2008)와 하석철(2010)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김진(2008)은 노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건강상태는 경제적 자원이전보다는 도구적 자
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윤
정·고선강(2011)은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황남희·정주연(2009)은 50대 이
상의 부모는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건강상태가 도구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로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들(강유진·한경혜, 1997; 서소영·김명자, 1998; Koh & MacDonald, 2006)이 많았다. 한민아(2004)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도구적 자원이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득이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김태현·임선영(2004)은 부모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손용진(2008)도 부모의 소득이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할 때 자원을 제공받는 부모의 소득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강유진·한경혜(1997)의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상태를 수입의 충분 정도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은 집단의 경우 비동거 기혼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의 정도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소영·김명자(1998)의 연구 결과는 시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시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임선영(2004)은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 제공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달아기(1998)는 노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도구적 자원이전의 교류가 높다고 하였다.

취업이나 소득 활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 이전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선강

(2011)은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즉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어머니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손자녀에 대한 돌봄의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자녀수는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윤선영(2008)의 연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석철(2010)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으며, 고선강(2011)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다. 고선강(2005)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적어진다고 하였다. 정기원(2001)의 연구 결과 따로 살고 있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관련 변수

자녀의 연령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들과 이와는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한민아(2004)와 김명자·손서희(2005)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고, 고선강(2012)의 연구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김지경·송은경(2004)은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2002년) 자료를 사용하여 따로 사는 부모와의 자녀가구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녀의 연령이 젊을수록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여 다른 연구자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하석철(2010)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게 경제적인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한민아(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딸보다 아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민아(2004)의 연구 결과 아들일 때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도 아들에게 가장 많은 경제적 자원제공을 하였다. 김지경·송현주(2008)는 아들이 딸보다 부모와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딸보다 아들이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석철(2010)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부모-자녀간 소득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딸보다 아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녀의 성별이 도구적 자원이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고선강(2005)은 아들보다 딸인 경우 부모에게 돌보기 제공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한다. 한민아(2004)는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김진(2008)도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반면, 김지경·송은경(2004)은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도구적 자원이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고선강(2008)의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결과 대졸 이상의 자녀가 고졸 이하의 자녀에 비해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소득은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

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다. 강유진·한경혜(1997)의 연구 결과 자녀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지연(2005)의 연구 결과는 자녀의 총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하석철(2010)의 연구도 자녀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선강(2012)의 연구 결과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수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2005)의 연구 결과는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자녀가구의 자녀, 즉 손자녀의 유무는 부모와 기혼 자녀간의 자원이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2008)은 손자녀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지경·송현주(2008)는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구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경제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선강(2011)의 연구는 자녀가구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는 기혼 자녀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고선강(2012)은 자녀가구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서 자녀의 취업은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김진(2008)은 성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자원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석철(2010)은 자녀가구의 가구주가 취업했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고선강(2012)의 연구 결과 기혼 여성이 취업한 경우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제공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한지수·홍공숙(2007)은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 자녀의 시장 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 요인을 연구한 결과 자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중년기 부모가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중년기 부모가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수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과 노후 계획(krf-2009-c00010)’ 연구과제에서 수집된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중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적어도 1인이 생존해 있어야 하며 둘째, 자녀 중 적어도 1

인이 결혼(이혼, 사별 등)한 상태로 조사대상자 부부와 따로 살고 있고, 셋째, 서울특별시와 전국 6대 광역시(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도시의 표본 수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거주 가구수에 비례하여 목표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하여 표집하였다. 총 2067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1679부였으며, 부실하게 기재된 50부를 제외한 1629부로 회수율은 81.2%였다.

본 연구 대상은 위의 설문조사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50-60대의 중년기 부모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중년기를 40대에서 60대로 보았을 때 중년기의 특성을 비교적 잘 대표할 수 있으나 40대 경우 표본수가 작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70대는 그들의 자녀가 중년기에 접어든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1208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자원이전은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경제적 자원 제공, 경제적 자원 수혜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최근 5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수혜)한 여부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수혜(제공) 받은 여부로 측정하였고, 경제적 자원이전의 내용은 생활비, 사업자금, 주택관련 비용, 부채상환, 의료비, 내구재 구입비, 경조사 등 단순 증여의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가를 측정하였다. 도구적 자원이전은 지난 1년간 부모가 자녀의 가사일을 도와주거나 자녀로부터 부모의 가사일을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으로 친밀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중년기 부모의 답변으로 측정하였고, 답변은 평정식 척도로 ‘전혀 친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 변수	경제적 자원 이전	제공	- 최근 5년간 자녀에게 1=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있다 0=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없다
		수혜	- 최근 5년간 자녀로부터 1=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0=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도구적 자원 이전	제공	-귀하부부가 자녀의 가사일을 1=도와준다, 0=도와주지 않는다
		수혜	-자녀로부터 귀하부부의 가사일을 1=도움 받는다, 0=도움 받지 않는다
독립 변수	정서적 지지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 1=전혀 친밀하지 않음, 2=친밀하지 않은 편, 3=보통 4=친밀한 편, 5=매우 친밀한 편	
부모 관련 변수	연령	만 세 / 1=50-54세, 2=55-59세, 3=60세 이상	
	교육수준	교육년수 / 1=전문대졸 이상, 0=고졸 이하	
	건강상태	1=매우 나쁨, 2=나쁜 편, 3=보통, 4=건강한 편, 5=매우 건강 / 1=좋은 이상, 0=보통 이하	
	가구주의 소득활동 여부	1=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0=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자녀수	명 / 1=3명 이상, 0=2명 이하	
	가구소득	함께 사는 모든 가족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의 합 만원 / 1=300만원 이하, 2=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3=500만원초과	
자녀 관련 변수	자녀연령	만 세 / 1=20대, 2=30세-34세, 3=35세 이상	
	자녀성별	1=남성, 0=여성	
	자녀교육수준	교육년수 / 1=대졸 이상, 0=고졸 이하	
	자녀취업여부	1=취업, 0=미취업	
	손자녀 현황	1=미취학 손자녀 있음, 2=취학 이상 손자녀, 3=손자녀 없음	
	자녀가구의 소득	최근 1년간 자녀가정의 월평균 소득(만원/월평균) 1=300만원 이하, 2=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	

밀하지 않음'의 1점부터 '매우 친밀한 편'의 5점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통제변수는 부모관련 변수와 자녀관련 변수로 구분하였다. 부모관련 변수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주의 소득활동여부, 자녀수,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모의 연령은 조사대상자의 만나이로 측정하였고, 집단 간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해 50-54세, 55-59세,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연속변수인 교육년수로 측정하고,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이를 다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건강상태는 5점 평정식 척도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보통 이하와 좋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주의 소득활동 여부는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와 ‘하고 있지 않다’로 분류하여 측정하였고, 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측정한 후, 2명 이하와 3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함께 사는 모든 가족원의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의 합으로 측정하였고,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녀관련 변수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취업여부, 손자녀 현황(자녀가구의 자녀), 교육수준, 자녀가구의 소득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대, 30-34세, 3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교육년수의 측정과 함께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손자녀 현황은 중년기 부부의 기혼자녀에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취학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의 3집단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자녀 가구의 소득은 최근 1년간 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연속변수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경제적 자원의 제공과 수혜 여부와 도구적 자원의 제공과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AS/PC Statistic Program (Version 9.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의 특성

본 연구 대상인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중년기 부모의 평균연령은 57세였고, 50-54세가 28.9%, 55-59세가 42.6%, 60세 이상이 28.6%로 55-5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년수가 평균 약 13년으로 고졸 이하가 65.5%,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은 34.5%였다. 건강상태는 평균 약 3.5점으로 보통의 건강상태였으며, 보통 이하가 45.7%, 좋음 이상이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월 평균 소득이 약 484만원이었고, 이를 집단별로 보면 300만원 미만은 36.7%,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34.3%, 500만원 초과가 29.0%로 300만원 미만의 집단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소득활동여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80.9%, 하고 있지 않다가 19.1%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았다. 자녀수는 평균 2.2명이었으며, 2명 이하의 경우가 72.0%, 3명이상이 28%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2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기혼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평균 31세로 20대가 30-34세가 41.2%, 35세 이상이 22.5%로 30대 초반의 자녀가 가장 많았다. 기혼 자녀의 성별은 남성이 42.8%, 여성이 57.2%로 여성인 경우가 더 많았다. 기혼 자녀의 교육수준은 평균 약 16년으로, 고졸 이하가 11.1%, 대졸이상이 89%로 대부분의 기혼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기혼 자녀의 취업여부는 취업한 경우가 71.3%, 미취업이 28.7%로 취업한 자녀가 더 많았다. 기혼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49.8%로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자녀가

〈표 2〉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부모 관련 변수	연령	50-54세	349	28.89	57.17세	4.13세
		55-59세	514	42.55		
		60세 이상	345	28.56		
	교육수준	고졸 이하	791	65.48	12.55년	2.98년
		전문대졸 이상	417	34.52		
	건강상태	보통 이하	552	45.70	3.53점	0.68점
좋은 이상	656	54.3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29	36.70	484.25 만원	39.80 만원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401	34.30			
500만원 초과	369	29.00				
가구의 소득활동여부	하고 있다	965	80.89			
하고 있지 않다	228	19.11				
자녀수	2명 이하	870	72.02	2.23명	0.71명	
	3명 이상	338	27.98			
자녀 관련 변수	자녀연령	20대	438	36.26	31.35세	4.08세
		30-34세	498	41.23		
		35세 이상	272	22.52		
	자녀성별	남성	515	42.77		
		여성	689	57.23		
	자녀교육수준	고졸 이하	122	11.05	15.83년	1.54년
대졸 이상	982	88.95				
자녀취업여부	취업	849	71.28			
	미취업	342	28.72			
손자녀 현황	미취학 손자녀	601	49.75			
	취학이상 손자녀	80	6.62			
	손자녀 없음	527	43.63			
자녀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9	36.59	475.66 만원	670.07 만원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	287	27.00			
	500만원 이상	387	36.41			

* 결측값에 의해 변수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음

없음이 43.6%였으며,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6.6%로 가장 적었다. 자녀가구의 소득은 평균 약 476만원이었으며, 300만원 이하가 36.6%,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이 27.0%, 500만원 이상이 36.4%를 차지하였다.

2.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중년기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중년기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과 도구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년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독립변수는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수혜였다.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지 않는 경우보다 수혜 받는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약 2배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년기 부모가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환이론에서 주장하는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적 자원이전의 단기적 호혜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이전의 호혜적 관계가 장기적으로 같은 종류의 자원이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고선강(2008)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 이윤정(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이윤정(2010)의 연구 대상보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 이윤정(2010)의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모두 여성이었던 점이 이러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통제변수는 부모의 가구소득과 자녀연령, 자녀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손용진(2008),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기혼 자녀 관련 변수 중에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기혼 자

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한다고 한 김지경·송은경(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기간이 5년임을 고려하면 연령이 낮은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 결혼자금의 명목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기혼자녀에게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해 연구한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와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이 그 이상의 결혼기간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기혼 자녀의 성별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딸과 비교하여 부모가 아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3.1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민아(2004),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중년기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도구적 자원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중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 수혜 여부였다.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 수혜가 도구적 자원 제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 제공과 유사하게 자녀로부터 같은 종류의 자원의 수혜에 따라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혜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가사노동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도 자녀에게 가사노동이나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짐으로 도구적 자원이전은 상호

〈표 3〉 기혼자녀에게 중년기 부모의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		도구적 자원 제공 여부		
		B	odds Ratio	B	odds Ratio	
독립변수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0.689 ***	1.992	0.117	1.124	
	도구적 자원 수혜 여부	0.320	1.377	1.906 ***	6.727	
	정서적 지지	0.128	1.136	-0.078	0.925	
통제변수	부모 관련 변수	연령	0.049	1.050	0.017	1.017
		교육수준	0.038	1.038	-0.028	0.973
		건강상태	0.129	1.137	-0.108	0.898
		가구소득(자연로그)	0.488 ***	1.629	0.062	1.063
		소득활동여부	-0.240	0.787	-0.322	0.724
		자녀수	0.020	1.020	-0.214	0.807
	자녀 관련 변수	자녀연령	-0.151 ***	0.860	-0.036	0.965
		자녀성별	1.147 ***	3.149	-0.667 ***	0.513
		자녀교육수준	0.009	1.009	0.005	1.005
		자녀취업여부	-0.324	0.723	0.744 ***	2.104
		미취학 손자녀	0.128	1.137	1.207 ***	3.344
		취학이상 손자녀	-0.454	0.635	0.812 *	2.251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0.137	0.872	0.439 **	1.552	
	상수	-1.434		-3.325 *		
-2Log Likelihood		1239.22		1127.21		
Chi-square / F		146.80***		132.09***		

* p<.05, ** p<.01, *** p<.001

호혜적인 방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는 자녀성별, 자녀취업여부, 손자녀 현황, 자녀가구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모관련 특성과 자녀관련 특성을 통제했을 때, 부모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도구적 자원이전은 돌보기를 포함한 가사일을 돌봐주는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년기 부모가 아들 보다는 딸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할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취업여부는 자녀가 취업한 경우 도구

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가 취업한 경우 가사노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취업한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혼여성 자녀가 시장노동에 참여하여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는 한지수·홍공숙(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손자녀 현황은 손자녀가 없는 경우(준거집단)와 비교하여 미취학 손자녀가 있는 경우와, 취학 이상의 손자녀를 둔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다. 미취학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손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부모는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손자녀 현황이 자녀 관련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취학이상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도 손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았다. 이는 중년기 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다는 것은 소득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가구에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년기 부모가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한 경우,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도 높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가 취업한 경우, 손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미취학 손자녀와 취학이상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2) 중년기 부모의 기혼 자녀로부터 자원 수혜

중년기 부모의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와 도구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중년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중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 제공과 정서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통제변수로는 부모의 가구소득과 손자녀 현황, 자녀가구의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경제적 자원 제공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다. 정서적 지지가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중년기 부모가 기혼 자녀를 친밀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으로는 중년기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친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더 친밀하다고 느끼는지의 선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행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자원이전이 중년기 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관계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통제변수 중 부모의 소득은 낮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시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한 서소영·김명자(1998)의 연구결과와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 수혜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고선강(201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이전의 이타적 동기를 지지하는 것이다. 기혼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미취학 손자녀 유무와 자녀의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었다. 손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미취학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자녀가구의 소득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

〈표 4〉 중년기 부모의 기혼 자녀로부터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도구적 자원 수혜 여부		
		B	odds Ratio	B	odds Ratio	
독립 변수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	0.728 ***	2.071	0.264	1.302	
	도구적 자원 제공 여부	0.111	1.117	1.849 ***	6.352	
	정서적 지지	0.455 ***	1.576	0.044	1.045	
통제 변수	부모 관련 변수	연령	0.049	1.050	0.037	1.037
		교육수준	-0.013	0.987	-0.062	0.940
		건강상태	-0.050	0.952	-0.240	0.787
		가구소득(자연로그)	-0.247 *	0.781	0.460 *	1.584
		소득활동여부	-0.093	0.911	0.810	2.249
		자녀수	0.039	1.040	-0.011	0.989
	자녀 관련 변수	자녀연령	0.055	1.057	0.032	1.032
		자녀성별	-0.190	0.827	0.112	1.118
		자녀교육수준	0.035	1.036	-0.037	0.964
		자녀취업여부	0.174	1.191	-0.285	0.752
		미취학 손자녀	0.610 ***	1.841	0.052	1.054
		취학이상 손자녀	0.365	1.440	0.976	2.655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0.593 ***	1.809	-0.340	0.711
		상수	-9.883 ***		-6.155 *	
-2Log Likelihood		1313.201		486.817		
Chi-square / F		142.959***		77.096***		
R ²						

* p<.05, *** p<.001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강유진·한경혜(1997), 김지연(2005), 하석철(2010),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중년기 부모의 도구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중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 제공과 통제변수에서는 부모의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도구적 자원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사 및 육아도움을 제공한 경우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자원이전의 경향이 높아진다고 한 고

선강(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의 가구소득은 많을수록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컸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의 기대감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노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도구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고 한 홍달아기(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중년기 부모가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미취학 손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확률이 높았다. 도구적 자원 수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의 상호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로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과 노후계획’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의 상호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어릴수록, 아들인 경우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측정한 것을 감안하면 자녀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부모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중년기의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가구에게 큰 부담이며,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인해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아들인 경우 신혼집을 마련해 줘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중년기 부모는 기혼 자녀가 아들인 경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딸인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기혼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할 때 제공되는 자원의 종류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혼 자녀가 아들인 경우 딸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

고 있었다. 또 기혼 자녀가 딸인 경우는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의 분석에서 성별과 더불어 손자녀 현황과 자녀의 취업여부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보면 딸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딸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높지만 이들의 자녀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여전히 육아는 기혼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 딸의 직장생활을 위해 부모가 손자녀 돌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년기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이전하는 자원이 달랐는데,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과 딸에 대한 도구적 자원 지원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자원 지원 없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중년기 부모가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자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20-30대 성인 자녀들이 생활의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대가족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보육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과도한 결혼비용과 관련된 과소비문화를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 기혼 자녀의 자원 이전은 교환이론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타주의론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었다. 기혼 자녀와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같은 종류의 자원 교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선

행연구들이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와의 자원이전에서 다른 종류의 자원 교류를 통한 호혜성을 발견하여 교환이론을 지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중년기 세대와 그들의 아랫세대 간의 자원이전은 같은 종류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성립함을 알 수 있었고,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타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분석 표본이 비확률 할당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것에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노부모, 중년기 부부와 기혼자녀의 3세대를 분석 단위로 설정한 자료로부터 연구표본을 추출하였다. 원자료의 표집방법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표집을 하였으나 비확률표집 방법에서 오는 일반화의 한계가 연구표본 추출에도 반영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이 일반 도시가구 근로자의 소득보다 높게 편포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 행동이 달라지므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계층 내에서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다 각 소득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중년기 세대를 위한 노후생활지원정책,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및 결혼지원정책, 보육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와의 자원이전을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이전을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자녀로부터 수혜 받는 경우 모두를 고려하여 부모와 자녀의 특성이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이전을 분석할 때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수혜 받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중년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자원이전의 연구에서 어떠한 이유로 자원이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원래의 취지가 3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이다. 3세대간의 자원이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3세대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표집의 과정에서 대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눈덩이표집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보니 조사대상자들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게 수집이 되어 전반적인 조사대상자들이 전국대상에 비하여 표집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노년층의 빈곤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빈곤한 중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이 더 빈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 다양한 계층화에 대한 세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한경혜(1997).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271-288.
- 2)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3) _____(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지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4) _____(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5) _____(2012).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적 자원이전: 20-40대 기혼여성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19.
- 6) 김명자·손서희(2005).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3(7), 37-51.
- 7)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8)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중서·손창균·최영준·김영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김승권·박중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 2012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김은경(2002).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27-36.
- 11)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12)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13) 김지연(2005). 성인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김진(2008). 한국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태현·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85-109.
- 16) 김현주(2005). 어머니와 자녀간 지원교환과 관계만족도: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525-553.
- 17) 박미려(2007). 은퇴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서소영·김명자(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인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 20) 손용진(2008). 노부모-자녀 간의 사적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2, 225-246.
- 21) 안경숙(2005). 노인부부·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1-19.
- 22) 여성가족부(2011). 2010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3) 윤선영(2008). 노인가구의 연령집단별 사적소득이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이상림·김두섭(2002). 세대간 교환관계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5(1), 83-111.
- 25) 이윤정(2010).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지원이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자녀 간 자원이전: 경제적 지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37-151.

- 27)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 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 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 28) 임효연(2009). 일본 대도시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7(5), 59-66.
- 29) 정기원(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 30) 통계청(2012) 2012 사회조사. 통계청.
- 31) 하석철(2010). 가족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한민아(2004). 세대 간 지원교환관계와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한지수 ·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요인: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 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61-75.
- 34) 홍달아기(1998).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15-127.
- 35) 황남희 · 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 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36) 한국경제신문(2012).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들 자녀결혼 두려워. 2012. 6. 26.
- 37) 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 38) Becker, G. S.(1992).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39) Hentetta, J. C., Hill, M. S., W., Soldo, B. J. & Wolf, D. A.(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ransf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40) Grundy, E. & Henretta, J. C.(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and Society, 26, 707-722.
- 41) Koh, S. & MacDonald, M.(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투 고 일 : 2013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4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5월 10일